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

국내여건이 성숙해 있다

본회는 브로일러산업안정화의 지름길은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에 있다고 판단.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의 후원을 얻어 미국 National Broiler Council (NBC - 미국브로일러 협회)의 W. P. Roenigk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9월 23일, 26일, 27일 3일간 전북 정주(내장산관광호텔), 서울(미국농업무역관), 대구(축협회의실) 등지에서 브로일러 계열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지는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의 내용을 간추려 본란에 게재한다.(편집자註)



William P. Roenigk
(미국 NBC 기술, 교육, 홍보, 조사담당 이사)

병아리, 사료, 약품 등 각각의 생산요소를 모두 중간재로 취급하여 각 중간재의 이익없이 최종상품(도계품)에 적절한 이익을 부과하는 계열화생산체계(integration system)는 생산자 즉 농업분야와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농업분야(부화장, 사료회사, 도계장)가 협력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농업과 기업이 상호의존하여 하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급, 가격, 산업의 장기안정을 가능케한다.

현재 미국에는 개인체제, 회사(주주)체제, 협동조합체제 등 3개 종류의 80개 계열주체가 있어 예전에는 생산에만 전념하던 육계산업이 유통에서 소비까지 새로운 제품개발과 판촉활동을 통해 1인당 25kg의 소비신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자와 계열주체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단위당 생산량은 계속 신장하고 있다.

미국의 브로일러계열화의 일반화는 1950년대 초부터 각자가 필요에 의해 자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주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

전해 왔다.

한국도 이제 그 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 한국의 사료공장, 부화장은 많은 발전을 통해 상당한 수준급으로 한계에 와 있으며, 생산자들의 수준과 유통체제는 아직 낮다. 이는 곧 산업전체가 비능률적으로 모든 관련부문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상당한 수준의 사료업체, 부화업체에 발맞추어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도계장, 생산자, 유통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도 브로일러계열화는 필요하다. 계열화시스템은 균일한 물건(도계품) 생산을 위한 단일화의 관리체제로 효율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브로일러계열화 국내여건 성숙

미국경험에 비추어 미국의 브로일러계열화 시작당시와 같이 한국의 상황이 흡사한데 수퍼마켓의 발전, 위생적인 소비자 수준 등 성숙여건은 매우 좋다고 본다. 한국적 실정에 맞게 양계

관련자들은 사료수입국으로서 국가적, 사회적 당위성이 뚜렷함에 힘입어 모든 정책관련자의 책임에 앞서 현실의 당연성에 비추어 양계인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해 미국, 일본 등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브로일러산업의 발전에 있어 계열화 도입은 국가산업의 고속도로와 같이 관련산업 모두의 급속한 발전을 시사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십년후를 내다보며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브로일러계열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실력을 갖추고 일부 시작을 서두르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비자가 격을 저렴하게 보급해야 하며 계열주체는 세밀하게 많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전제로 양측 계약당사자간에 이익이 되는 장점을 갖고 출발하여야 하며 어느 수준까지는 자기소유 생산용 시험농장(미국의 경우는 전체생산의 10% 정도)으로 운용해 계약지도, 자료제시, 장단점 파악에 이용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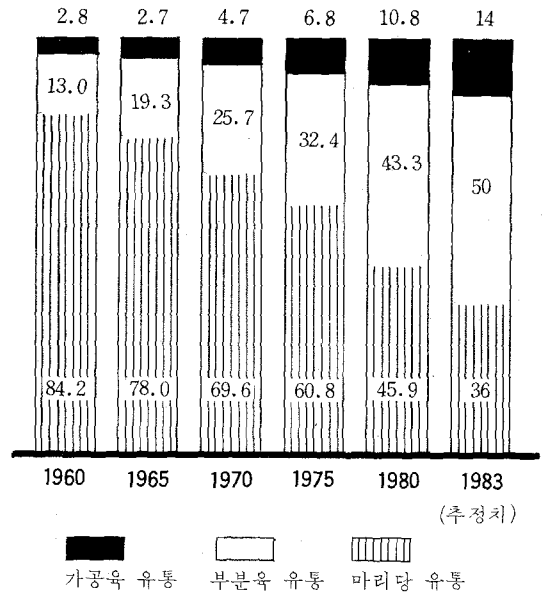
외국보다 빠른시간내 계열화 정착가능

생산자는 일부분만 제약하는 방법, 사료만 제약하는 방법, 모든 것을 계열주체에 맡기는 계약방법 등 선별하여 택하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모든 것을 계열주체에 맡기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점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화를 통해 발전을 전제하면서 해결코자 한다면 무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외국의 경우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화장, 사료회사 등 양계분야에 일대 변혁이 있을 것이다. 피나는 경쟁에 의해 산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정부는 브로일러계열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계품질의 검사, 자금지원, 세제상의 지원 등 객관성 있는 발전적인 분야에 개입하며 이익과 문제점에 일부 개입하여 계열화를 촉진(시작)하는 정도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축산업은 생산위주로 지원

미국의 브로일러 유통추세



발전하였으나 늦은감도 없지도 않으나 이제 유통산업에 눈을 돌릴때가 되었다.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는 농기업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선진국 시찰 등을 통해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양계업이 이제까지 착실히 발전해 온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짧은 시간내에 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직후 계열화가 시작되어 50년대초 왕성하게 발전해 경제적 변화, 소비자의 일반적 기구변화, 동시에 농업과 기업간의 이해상충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악순환되어 가다가 과당경쟁에 의한 계열주체들의 실패도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현재는 새로운 계육상품의 개발과 소비자교육을 통해 타육류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있다.

닭고기 품질검사 재고해야

이밖에 닭고기의 품질에 있어 한국의 경우는 현재 도계장시설이 최신의 시설부터 1940년대의 노후된 시설까지 존재하는 현실속에 닭고기 품질은 균일치가 못해 비위생적인 처리가 많

은 것을 보면 계열화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실정에서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도계품질검사는 한국의 경우 거의 자체 검사를, 그것도 도계검사만 실시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농무성검사와 FDA 검사를 실시하여 도계장에 도착한 닭의 생체검사, 도계작업중 검사(작업시작부터 작업이 끝날때까지 작업내에 선채로 꼼꼼히 검사한다) 외에도 작업전 시설검사, 유통과정중 무작위 표본검사(random sample test), 약품에 관계되는 검사 등 까다로운 정도로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고 도계장측에서도 검사원 지시에 잘 따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중 객관적인 위생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상품화에 관해서 한국의 경우 현재 발전초기로 개선점이 많은데 상점마다 가격이 다르고 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내장을 적출한 것, 털만 뽑은 도계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슈퍼마켓에도 포장에 따라 등쪽으로 포장된 것과 내장쪽으로 포장된 것이 있어 소비자 기호도에 따라 구매의욕이 달라질 수 있다. 포장 용기도 노란색 닭고기의 선호도가 높으면 노란색 용기로, 흰색의 기호도가 높으면

흰색의 용기에 담는 배려를 해야하며 닭고기 상품명과 부위별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 닭고기 유통은 통닭에서 분할육으로 다시 부분육으로 바뀌어 가는데 도계장 단계에서 부분육(cut-up)화 하여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가공육 개발 서둘러야

제품개발 및 소비촉진에 대하여는 판매하고 남은 닭고기 등은 발골육화 하여 소세지 등 가공육 생산에 이용하는데 통닭, 부위별 분할육, 가공육 등 단계별로 구매자 기호에 맞추어 제품(요리방법 등)을 개발해야 하고 이런 일은 기업(계열주체)이 담당해 상품을 도입하여 소비관계 상품교육, 상표선전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품으로 가격이 타육류보다 비싸지 않다는 교육을 하여 소비자를 설득하고 동시에 Fast Food 등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용도개발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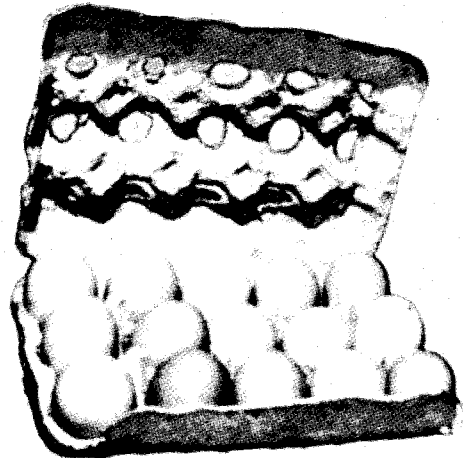
이외에도 도계장 건립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이 무한정 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수년 후 못쓰게 되면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 브로일러계열화 정착후 과연 몇 개가 필요한지 재고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리: 남두희>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성남) 43-1042, 41-0171